



‘가짜 왕’에 투영된 민심…“자. 엇 드시오”

〈극중 가짜 왕 ‘하선’의 대사〉

가짜왕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정치
현대식 기득권 끝없는 욕심과 닮아
백성을 섬기는 왕, 이상에 불과할까?

“서울 문밖에서 몇 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멀고 먼 시골이라? … (중략). 오직 서울의 십리 안만이 가히 살 수 있다. 만약 집안의 힘이 쇠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을 유지하다가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도시 복판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예나 지금이나 ‘인(in) 서울’은 세상살이에 매우 중요한 방책인가보다. 다산 정약용마저 두 아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으니 말이다. 다산은 1801년 귀양을 떠나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살게 하겠다’면서 “앞으로의 계획인즉”이라며 두 아들이 서울 혹은 “서울 근교”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박석무 편역)

●세금은 정치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살기에 팍팍하더라도 서울로, 서울로 몰려든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문은 “1998년 8월 대비 2018년 8월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168.32%”였지만, “서울이 237.49% 오르는 사이 6대 광역시는 159.56% 상승에 그쳤다”며 “집값이 지역에 따라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벌어진 서울의 집값은 올해 여름 크게 치솟았다.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했지만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등 집값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이 되어 찾아들지 않는다.

11월이면 400주기를 맞는 교산 허균은 한 때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일 뿐이다”고 말했다. 당파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들에 맞서 임금인 광해를 지키려는 신하였던 그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현실정치를 외면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똑같이 생긴 자를 바람막이로 내세운 광해의 계획을 허균은 따랐다. 광해군 8년이었던. 진짜를 대신해 거짓거리의 만담꾼 하선을 용상에 앉혔다. 가짜는 허균의 명을 따라 교지를 내리고, 일종의 조화인 상



누가 진짜 임금이고, 누가 가짜인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백성을 섬기는 진짜 군주에 관한 질문을 가짜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냈다. 영화의 한 장면. 스포츠동아DB

참을 주재했다. 그러는 사이 가짜는 백성을 멀리 두고 오로지 헛된 ‘사대의 예’만을 앞세워 당파의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정치일 뿐”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케 하는 역설이 되었다.

허균이 정치라고 말한 것은 대동법의 처리 문제였다.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대신하던 공납의 시대에 이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백성은 다른 곳의 물건을 사서 바쳐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중간 상인이 등장하고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관리도 적잖았다.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만한 경작지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조세 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며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납을 대신해 토지의 소유 폭에 따라 쌀로써 세금을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 광해의 아버지 선조의 시대에 맹아를 띄웠다.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허균이 바라보는 “정치”가 바로, 거기 있었다. 그는 적대적 세력에 대동법 포기라는 정략을 내어주고 대신 왕을 지키고자 했을 터이다. 하지만 세금은 결코 정치가 될 수 없을을 가짜는 말했다. 광해 대신 용상에 앉은 하선이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겠다”며 대신들을 호통 치는 장면은 ऐसा롭지 않은 현실을 일깨운다.

●이상을 현실로 실천하라

대동법 논쟁이 지나고 이듬해 8월 허균은 “역성 혁명을 이유로 참수”당했다는데, 이미 그 이전인 광해군 3년(1611년) 그는 귀양을 경험했다. 전라도 익산의 함라마을(옛 함열현)이 유배지였다. 함열은 호남의 8개 지역에서 세금으로 바친 백성의 곡식을 싣고 나르는 금강의 성당포구가 자리 잡은 곳이다. 백성의 고향은 황포돛배에 실려 포구에서 들고났다.

하선은 “왕 노릇”을 마치고 뚝단배에 올라타 도망치듯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허균은 존경의 고개를 숙였다. 허균은 하선에게 “백성을 하느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뤄드리다”고 말한 바 있다.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허균의 꿈은 그저 한낱 이상에 불과했을까. 하선의 배가 나아가기 시작한 곳, 어쩌면 성당포구일까.

저 멀리 포구를 바라보는 함라마을에는 광해를 몰아낸 세력에 의해 임금이 된 인조 아래서 신하로 일한 잠곡 김육이 살아 있다. 김육은 죽음 앞에서도 유서로써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호남평야의 중심에서 고향을 짚내야 했던 백성들은 그를 기억하고자 ‘김육불망비’(金瘉不忘碑)를 세웠다. 이상을 품었던 허균이 한때 유배의 생활을 보냈던 곳에서 이상을 구제화하며 현실에 치열하게 맞서려 했던 김육은 그렇게 살아 있다.

김육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조세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폈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인 서울’의 욕망으로써 아들을 가르치려 한 것일까.

그는 현실정치가 인간 피할 수 없는 유배의 아픔 속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므로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훌쩍 먼 곳으로 도망가 살면서 더 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걱정하곤 한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 시골 깊은 산속으로 몰락하여 버림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늘진 벼랑 깊숙한 골짜기에서는 햇볕을 볼 수가 없”으니 “마침내 노루나 산토끼처럼 문명에서 멀어진 무지렁이들이 돼버릴 뿐”이며, 그래서야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이기 때문이다.(정약용 위 책)

결국 그가 말한 “서울 한복판”은 각자의 처지가 마련하는 좁은 시각으로 오해할 수 없으니, 훗날 “재난당할” 현실이 닥쳐오더라도 바로 그 현실에 탄식하게 두 발을 딛고 서라는 의미가 아닐까.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그 의미를, 허균의 이상과 김육의 실천을, 집값과 그로 인해 부각되어야 할 마땅한 세금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의 현실에 새삼 비추보게 되는 건 아닐까.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왕과 만담꾼’의 인생역전 이병헌 1인2역 인생연기

2012년 추창민 감독 연출작. 광해군 8년 “역모의 소문이 뽐뽐하니 임금께서 은밀히 이르다. ‘닭은 자를 구하라. 해가 저물면 편전에 머물게 할 것이다. 숨겨야 할 일은 조보에 남기지 말라’”고 쓴 ‘광해군일기 2월28일자’를 모티브 삼았다. 도승지 허균이 독살 위기에 처한 광해를 대신해 그와 똑같이 생긴 만담꾼 하선을 임금의 자리에 내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상적인 군주의 면모를 그리며 1200만 관객의 지지를 얻었다. 이병헌이 광해와 하선의 1인2역을 연기하며 호평 받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휴대용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名作
名品**

무르팍엔에는 5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쁜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 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나누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전국 시군구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 모집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名作
名品**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조이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허리조이
재질/판매원: 스텐
재원: 길이: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손발레 가능
제조국: Made in Korea

몸이 800개 이상 베를
원적외선 91.7%
(원적외선 번호: C116-14067)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대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대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쉰 후 일어나 온몸이 가뿐해지는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것을 잃었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이 발열벨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